

알맹이 없는 ‘카드 경쟁력 제고방안’... 업계 ‘부글부글’

카드업계 “레버리지 비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요구 반영 안돼 핵심 이슈에 대한 개선의지 미흡”

금융당국이 최근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핵심 과제인 부가서비스 축소와 레버리지 비율 확대에 대한 논의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는 알맹이 없는 ‘반쪽짜리 개선안’이란 반응이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지난 9일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가 요구했던 핵심 과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의지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가서비스 축소와 레버리지 비율 확대 등 카드사가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부가서비스 축소는 지속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돼 상품의 수익성이 낮아진 카드사에겐 중요한 요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향후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거쳐 단계적,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현재로서는 당장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제2의 카드대란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촉발하는 금융감독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카드 상품을 설계한 이후에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상품의 설계 과정부터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를 만들지 말라는 입장이다”며 “그러나 과거에는 수수료율이 지금처럼 낮지 않아 평균적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2.0%에 달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카드상품을 설계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입장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대형가맹점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율은 마트·통신사·자동차 업계가 각각 1.94%, 1.80%, 1.84%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크게 줄어 들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소리에 따라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 하는 것인데, 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했지만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시행 일정조차 없어 과연 논의가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대안이 미흡하다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지출현황>

단위:천억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부가서비스비용 | 35.3 | 39.4 | 44.8 | 50.4 |
| 포인트적립비용 | 15.7 | 16.8 | 17.1 | 18.3 |
| 제3자 포인트비용 | 3.7 | 4.1 | 4.5 | 4.9 |
| 할인서비스 비용 | 11.7 | 13.4 | 16.9 | 20.3 |
| 기타 부가서비스 비용 | 4.2 | 5.1 | 6.3 | 6.9 |
| 광고선전비 | 2.1 | 2.2 | 2.1 | 2 |
| 무이자할부비용 | 3.4 | 3 | 3.2 | 3.9 |
| 기타마케팅활동비용 | 7.5 | 8.8 | 10.6 | 10.7 |
| 합계 | 48.2 | 53.4 | 60.7 | 66.9 |

/자료=금융감독원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총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을 캐피탈사 등 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과 같은 10배 수준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요카드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우리카드가 6배로 한도치에 도달했고, 롯데(5.8배)·KB국민(5.2배)·하나(5.1배)·현대(5.0배)카드 또한 한도치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행 6배 한도인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되,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은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신사업의 경우 우선

적으로 신용정보법이 개정돼야 하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금리대출 자산 또한 업권 전체로 봤을 때 5000억원에 불과해 130조원에 달하는 카드사 총자산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레버리지 비율 계산 시 총자산 중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 같은 예외가 향후 또 다른 규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대안이다”며 “중금리대출 자산에 대해서도 이미 당국의 가계부채총량규제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가 지속적으로 중금리대출을 확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지난 9일 서울 중구 농협금융 본사에서 열린 농협금융 1분기 경영성과 분석회의에서 농협금융주 김광수 회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임직원에게 당부말을 하고 있다.

김광수 회장 “디지털금융 대응 방안 필요”

NH농협금융, 1분기 경영성과회의 금융규제 변화 기민한 대응 주문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9일 김광수 회장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전 자회사 대표와 2019년도 1분기 경영성과분석회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회사별 1분기 주요 성과와 이슈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분기 이후 자회사별 중점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국내외 경제, 금융환경 불확실성 심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강화와 중장기 체질개선 지

속 추진 및 금융규제 변화에 기민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각 부문별 농협금융 1분기 사업추진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이런 사례가 농협금융 전체로 전파되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 회장은 “직원 모두가 디지털금융에 대한 기본 마인드와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직원 육성방안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전환에 대비한 조직, 인력운용 등 전방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상미 기자

SC제일은행 최고 연 1.8% ‘마이런통장 3호’

SC제일은행이 예치기간에 따라 최고 연 1.8%의 금리를 제공하는 ‘마이런통장 3호’를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런통장은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과 같은 별도의 조건 없이 예치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파킹통장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마이런통장 3호는 입금 건별로 예치기간에 따라 최고 연 1.8%의 금리를 제공한다. 입금 건별로 예치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연 0.1%, 31~60일 연 1.0%, 61~90일 연 1.2%, 91~120일 연 1.4%, 121~150일 연 1.6%, 151~180일 연 1.8%의 금리를 제공한다.

中企 대출 연체율 ‘빨간불’... 두달째 오름세

중소기업·가계신용 연체율 상승폭 ↑ 대기업 0.03%p 올때 中企 0.1%p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두달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폭이 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2%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0.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7000억원이 연체채권 정리규모 5000억원을 웃돌아 연체채권 잔액이 1조2000억원 늘었다.

대출 전 부분에서 연체율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신용대출에서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월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0.75%로 전월 말 대비 0.

<국내 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p

| 구분 | '16년 | | '17년 | | '18년 | | '19년 | | 증감 | |
|----------|------|------|-------|-------|-------|------|------|--|----|--|
| | 2월 | 2월 | 2월(A) | 1월(B) | 2월(C) | C-A | C-B | | | |
| 기업대출 | 0.96 | 0.79 | 0.64 | 0.59 | 0.68 | 0.04 | 0.08 | | | |
| 대기업 | 0.98 | 0.73 | 0.45 | 0.71 | 0.75 | 0.29 | 0.03 | | | |
| 중소기업 | 0.95 | 0.81 | 0.69 | 0.57 | 0.66 | 0.02 | 0.10 | | | |
| 개인사업자 | 0.46 | 0.41 | 0.36 | 0.36 | 0.43 | 0.06 | 0.06 | | | |
| 가계대출 | 0.38 | 0.29 | 0.28 | 0.28 | 0.33 | 0.05 | 0.05 | | | |
| 주택담보대출 | 0.29 | 0.21 | 0.19 | 0.20 | 0.23 | 0.03 | 0.03 | | | |
| 가계신용대출 등 | 0.64 | 0.51 | 0.49 | 0.48 | 0.56 | 0.07 | 0.08 | | | |
| 원화대출 계 | 0.70 | 0.57 | 0.48 | 0.45 | 0.52 | 0.04 | 0.07 | | | |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03%포인트,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66%로 전월 말 대비 0.10%포인트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3%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0.23%,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

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한 0.56%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그간 개선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소폭 상승했다”며 “신규연체 발생 추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금융, 올해 신입 1100명 ‘통큰 채용’

상·하반기 나눠 채용, 우리은행 최다

우리금융그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우수 인재 확보 차원에서 전년 대비 100명 늘어난 1100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올해 전체 채용 규모를 1100명까지 확대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채용할 계획이다. 계열사별 채용 규모는 우리은행 750명, 우리에프아이에스 171명 및 기타 계열사

182명 등이며, 우리은행의 상반기 일반직 채용은 4월 중 진행 예정이다.

지주사 체제 전환 첫해를 맞은 우리금융그룹이 혁신성장 기업 등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는데 이어, 이번 채용으로 우수한 청년인재 고용 확대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특성화고 출신 취업준비생들이 안정적인 취업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 출신 인재들에게도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밖에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카드는 지난 1월 비정규직 직원 250명 중 72%인 180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 바 있으며, 전환 이후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 및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채용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 규모를 전년보다 100명 증가한 1100여 명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